

“문화수도 걸맞는 천문대 건립... 별 헤는 광주 됐으면”



광주·전남 천체 지킴이 박종철 교수

한국시각으로 지난 23일 오후 8시32분, 지구촌 곳곳에서 가장 크고 밝게 보이는 ‘슈퍼문’을 관찰 하려는 이들은 달을 보느라 밤잠을 설쳐야 했다. 슈퍼문이 나타난 순간엔 지구와 달의 거리가 35만 km로 지구에서 달까지 평균거리 38만km보다 약 3만 km 가까워졌다. 일년에 한 번씩 관찰할 수 있는 슈퍼문은 달이 지구를 둘 때 타원궤도로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담양 병풍산 근처 국제환경천문대(구 삼양천문대) 박종철(57)박사도 잔뜩 긴 귀를 사이에서 10시 이후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낸 슈퍼문을 발견했다. “평소보다 훨씬 크고 2배 가량 밝게 보이는 슈퍼문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은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8분20초 후 달에 반사된 후 다시 1초 뒤에 지구에 관찰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토록 밝고 청아한 달이 우주공간에 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멋집니다.”

박종철 박사는 지난 1977년 대학시절 동명동 과학관에서 처음 망원경과 인연을 맺었다. 과학관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새빨간 태양이 사직공원 팔각정 뒤로 누워있던 모습을 감상할 때의 감동을 이야기 하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여전히 박찬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보성 시골집 밤하늘을 수놓은 반딧불이와 반짝이는 별을 보며 동심을 간직했던 아이는 어느덧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어른이 됐다.

박종철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환경천문대는 1986년 3월 개관했다. 그 전에 문을 연 천문대들은 주로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국제환경천문대는 일반 시민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체의 신비를 느끼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천문대가 바로 국제환경천문대다. 이곳에는 6m 크기 돔을 비롯해 150m 굴절식망원경, 광전측광기 등 다양한 관측 기자재가 있다. 사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과학선생님이

있던 그는 이런 취지에 공감해 교사를 그만두고 국제환경천문대에서 일하게 됐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천문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뚜렷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별에 관한 설명에 귀를 쫓듯 세우고 환하게 웃으며 천체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을 보며 한쪽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해 7월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살고 싶다는 부인의 꿈을 위해 담양군 수북면으로 이사한 그는 요즘 별자리 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천문학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열악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경북 영천에 있는 지름 1.8미터 크기인데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천문학자의 수와 망원경 크기는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대변합니다. 광주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천문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문화중심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천문대가 들어오고 별자리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사전예약 문의 061-381-8361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노동청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광주지방노동청은 26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근로자·노동단체 등 시민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코레일 광주본부, 심폐소생술 교육



코레일 광주본부는 26일 나주역 맞이방에서 나주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직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코레일 광주본부 제공>

광주시 관공협 '광주 문화관광포럼'



광주시관광협회(회장 김홍주)는 26일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관광업계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 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광주문화관광포럼을 개최했다.

고흥우체국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봉사



고흥우체국 늘푸른 봉사단은 최근 고흥군 금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소녀기장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고흥=주지경기자 gju@kwangju.co.kr

바리오화순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행사



주식회사 바리오화순(대표이사 김창호)은 26일 한국관광관리공단 호남지사(지사장 박철량)와 함께 화순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가꾸는 제2차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행사를 동북면에 위치한 감삿강 종명지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북중 전교생이 함께 참여해 화순문화원 김재철 원장으로부터 역사 강의를 듣고 종명지 일대를 청소했다. 행사에 참여한 동북중 학생회장 문건호군은 “문화재 청소도 함께 하여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담양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발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담양군지부가 최근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열린 발대식에는 학부모,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김동현 서기관, 담양군 보건소 조명순 지역보건담당 등이 강사로 나서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정책을 안내했다. 지부 슬로건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담양 만들기’로 정했으며, 조대 지부장에는 정재관 우리네 어린이집 원장이 선출됐다. 정재관 지부장은 “행복한 담양의 메아리가 파도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zg@kwangju.co.kr

여고생들 우간다 어린이들에 '학용품 나눔'

순천강남여고 '한틀나눔축제'

순천강남여고 여고생들이 아프리카 우간다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 26일 순천강남여고(교장 김중흡)에 따르면 이 학교 1·2학년 600여명은 최근 '한틀나눔축제'를 열어 가난하고 굶주린 아프리카 우간다의 빈곤 어린이들에게 노트·연필·지우개·색연필 등 1만원 상당의 학용품키트를 직접 만들어 보냈다.

이들은 또 에이즈·내전·가난 등으로 아파하는 아프리카를 가상체험하고, 우간다 친구들에게 사랑과 응원의 희망메시지도 띄웠다.

행사에 참여한 김태연(16·2년) 양은 “음식물 쓰레기로 삶을 연명하는 아이들, 에이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외부인이 오면 흑시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두려운 사람들을 영상으로 봤는데 충격이 컸다”면서 “반찬투정이나 하는 내 자신이 정말 사치스럽게 느껴졌다”고 반성했다.



정다슬(15·1년) 양은 “우리에게는 작은 것들이 우간다 친구들에게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베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틀나눔축제는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의 빈곤어린이 돕기 행사로 국내 최대 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다. 1991년 한틀나눔달리기를 시작으로 23년간 30만명 학생들이 참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뇌사 보건의료장 환자 4명에 새 생명

부안군 동진면 고 유점례씨

뇌출혈로 쓰러진 전북 부안의 한 보건진료소장이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면했다.

전북 부안군 동진면 보건진료소장인 고(故) 유점례(50·여)씨는 지난 14일 뇌출혈로 쓰러져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인인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22일 뇌사상태 진단을 받았다. 유족들은 유자의 뜻에 따라 23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유씨의 간과 신장 2개, 폐 등은 장기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전달됐다. 유씨는 또 장기 외에도 뼈와 피부 등 인체조직까지 기증을 해 수 십명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유족들은 “고인인 평소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뿐 아니라 조직까지 모두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정형관(43)씨의 신장 2개를 환자 2명에게 이식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서상기 광주체육회 전무 대통령표창

광주시체육회 당구연맹 서상기(사진) 전무이사가 마약퇴치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서 전무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26일 공동으로 주관한 '2013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이사로 활동하며 마약퇴치와 약물오남용 중독예방을 청소년, 성인들에게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최원길기자 cki@

인사

- ◆장흥군
 - ◇서기관 승진 ▲기획감사실장 김장렬 ◇지도관 승진·전보 ▲농업기술센터 안길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제해신 ◇사무관 승진·전보 ▲부산면장 장광준 ◇의회사무과장 임제희 ◇5급 승진자과장 교육대상 ▲위하선 ▲문상흠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김기평·김영예씨 장남 윤균(삼성화재)군 장형래(TBN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 전 편성제작국장)·오정숙씨 차녀 여원(KT)양=29일(토) 오전 11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권오을(울산·개인사업)씨 차남 혁현(울산경찰서 근무)군 이범영(왕일전다 조경)·김선희(윌티스사업)씨 장녀 소미(울산 경찰서 근무)양=30일(일) 오후 1시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 3층 로즈홀.
- ▲심종식(전 두등일보 지역사회부 국장)·박의숙씨 장남 상훈(한의사)군 박길수·최필계씨 장녀 아름(한의사)양=30일(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팔레드시즈 노블레스홀.

동창동문회

- ▲북성중 제27회 동창회 월례회(회장 김연중)=27일(목) 오후 7시 영미

오리당

- 062-362-5252.
- ▲재광고창중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기동) 정기총회=27일(목) 오후 7시 광주 NC(구 현대)백화점 9층 현대관 011-609-2327.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욱) 월례회=7월 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 ▲농성구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구연수) 6월 월례회 및 이유회=29일(토)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062-381-0019, 010-8010-1777.

향우회

- ▲재광나주 향우회 제22차 정기총회(회장 나도팔) 겸 나주인 모두의 만남의 장=29일(토) 오후 4시 광주 알펜시아웨딩홀 062-227-8880.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 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분들을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

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먼저

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모집

- ▲다음카페-잡된 나(?)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실, 이명, 환청,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약동,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만성난치·금연금지, 약속·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분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등 010-6609-9068.
-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7월~9월 여가운영 프로그램 신청안내=영 어회화, 중국어 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스포츠 댄스, 요가 3개월 3만원

062-951-9461.

-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계층의 저소득층근로,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람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센터 062-266-6321~2.
-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 ▲사단법인 호서랑빛 봉사단=뜸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부음

- ▲최양심씨 별세 김민준(광주일보 무안주재기자)씨 모친상=발인 28일(금) 무안병원 장례식장 5호실 061-453-0041.

- ▲범형님씨 별세 김성기(능협은행 상무지점장)·성권(가야자동차)·성욱(포스코 부장)·미라씨 모친상 황창현(광주교도소 계장)씨 빙모상=발인 28일(금) 광주 보훈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973-9163.
- ▲장매열씨 별세 이영배·영실·영욱(법무사)·춘자·맹순·맹진씨 모친상=발인 2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 ▲최용주씨 별세 병욱·향란씨 부친상=발인 27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 ▲정영태씨 별세 철·경아씨 부친상=발인 27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양덕교 님(남/90세) 子/子婦: 양영희/김신애, 영식/김미자 女/婿: 양영희, 영주/백운식, 영숙/김민규 •호실: 201호 •발인: 6월 26일 •장지: 담양부활의 집 •연락처: 227-4381	故김양래 님(여/98세) 子/子婦: 김달민/김숙남, 영민/최금숙, 병환/김인숙 女/婿: 김경자, 영숙/임성진, 선자/이현중, 월진/박한수 •호실: 401호 •발인: 6월 26일 •장지: 화순 도곡 성영 •연락처: 227-4383
故김상윤 님(남/89세) 子/子婦: 김성일/박희자, 성희 女/婿: 김미라/최현민, 미화 •호실: 101호 •발인: 6월 28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故차규일 님(남/66세) 子/子婦: 차태식/안수미, 태석/양갑순, 태일 女/婿: 차수미/강우영, 한미/한경수 •호실: 102호 •발인: 6월 27일 •장지: 남평면 성영 •연락처: 227-4386
故박순금 님(여/77세) 子: 강내원 女/婿: 강선미/이동운, 선희/최득식, 은희/백금진, 숙희/김수남, 서영/김현석, 지옥/김진옥 •호실: 402호 •발인: 6월 28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